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기말고사로 지친 몸과 마음을 뒤로하고, 종강하자마자 들뜬 마음으로 3박5일간의 말레이시아 해외문화체험을 다녀왔다. 비행시간이 꽤 길고, 버스로 이동한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알차고 유익하게 보낸 시간이었다. 첫째 날은 오전 11시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현지시각으로 오후 4시 30분경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처음 느낀 공기는 얼마 전에 비가 그친 것처럼 조금 습했다. 우리는 관광 버스를 타고 가이드 분의 설명을 들으며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다. 저녁을 먹은 곳은 Taman Botani Putrajaya의 음식점이었는데, 주변의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웠다. 울창한 열대 나무들과 탁 트인 강가의 모습이 밥맛을 더욱 좋게 한 것 같았다. 현지식은 크고 둥그런 식탁에 8명 정도가 둘러앉아서 가운데 돌림판 위에 놓인 여러 가지 요리를 덜어먹었다. 현지식이라고해서 입맛에 맞지 않을까 조금 걱정했는데 오히려 중식과 한식의 중간 쯤 되는 맛으로 부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식사 후에 버스로 2시간 정도를 더 달려서 말라카에서 하룻밤을 묵을 Ramada Plaza Melaka호텔에 도착했다. 마침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던 날이라서 모두가 함께 호텔 근처의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사서 축구경기를 시청했다. 경기는 아쉽게 1-2로 졌지만, 한마음으로 열렬히 응원하며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둘째 날은 말레이시아의 경주로 불린다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말라카의 역사와 유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다. 호텔 조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헝훤텡 사원**(우측 이미지)이었다. 16세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으로, 유교, 도교, 불교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이색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사원 내부에서는 향 피우는 냄새가 지독할 정도로 가득했고, 거대하고 화려하며 붉은 장식들이 마치 중국에 온 느낌이었다.



사원을 나서서 **존커 스트리트**(좌측 이미지)로 향했다. 이 주변에는 음식점을 비롯한 각종 상점들이 즐비했고, 관광객도 많아서 활기가 넘쳤다. 조금 걷다보니 진분홍색 건물이 서있는 **네덜란드 광장**(다음 장 상단 이미지)에 이르렀다. 이 건물은 과거 네덜란드가 말라카를 지배했던 1753년에 네덜란드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말라카 크리스티 교회였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이후 영국이 말라카를 점령하여 시계탑과 빅토리아 여왕 분수가 세워져 지금의 아름다운 광장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알고 보니 말라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주요 해상교통로에 위치하여 중세 향신료 무역, 해상 무역의 거점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다양한 국적의 인종과 종교, 물품들이 오가며 각 국의 쟁탈전을 벌였던 말레이시아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옆으로 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모습의 **세인트폴 대성당**이 보였다. 이 곳 또한 말라카의 식민지배 역사



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곳으로, 1521년 포르투갈 프란시스 사비에르 신부가 아시아에 최초로 세운 가톨릭 성당이다. 탁 트인 말라카 해협의 전망을 등지고서 흰 사비에르 신부의 동상이 우뚝 서있는데, 기묘하게도 신부의 오른손은 잘려진 채 온데간데없다. 이에 대해서는 가이드분께서 여러 가지 일화를 말씀해 주셨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한다. 포르투갈의 지배 이후에는 네덜란드가 점령하여 이곳을 묘지로 바꾸어 버렸다. 건물내부에는 아직도 그들이 세운 묘비가 남아있다. 인접한 곳에는 **산티아고 요새**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1511년 지어진 이 건물은 1641년 네덜란드의 공격을 받아 심하게 파손되었다가 그들에게 새롭게 수리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낮은 성벽 주위로 대포가 늘어서 있어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이렇게 오전을 말라카의 생생한 역사 속에서 보내고, 전 날과 비슷한 메뉴의 현지식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네덜란드 광장 부근으로

이동해서 **말라카 리버크루즈**(우측 이미지)를 탑승했다. 내리쬐는 햇빛과 푸른 하늘이 아름다웠다. 편하게 앉아서 강과 늘어선 알록달록한 건물들을 보니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여유롭고 행복한 기분만 들었다. 강물색이 맑지 않고 흙색이라서 왜 그런가 하니 쿠알라룸푸르라는 지명의 뜻이 '흙탕물의 합류'라고 한다. 자세히 보니 악어인지 도마뱀인지 모를 파충류도 유유히 떠다니거나 나뭇가지에서 쉬고 있어서 신기했다. 말레이시아의 역사가 숨 쉬는 말라카를 뒤로하고 다시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했다. 버스로 2시간 3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하단 이미지)였다.



이 건물은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로, 1992년 공사에 착수하여 1999년 8월에 개관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의 건설회사가 경쟁하며 지어올린 건물이라는 점이다. 당시 한국의 삼성건설은 일본에 비해 35일 늦게 착공하였지만 최종 완공은 6일을 앞섰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두 타워의 중앙에는 지상에 4층짜리 KLCC라는 대형 쇼핑센터와 중앙에 41층, 42층을 통해 연결한 스카이 브릿지가 위치한다. 전망대에 오르기 전에 약 2시간의 자유 시간을 갖고 쇼핑센터를 구경했다. 쇼핑센터 내부는 기대 이상으로 크고 넓어서 놀라웠다. 한국의 롯데월드몰이나 코엑스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시설이나 분위기가 세련되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 86층의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는 시간마다 정해진 인원만이 입장할 수 있고, 마치 공항처럼 소지품 검사에 엄격하다. 나는 일행의 후발대로 대기하여 입장

했는데, 마침 노을이 지기 시작해서 스카이 브릿지에서 주홍빛 하늘 경관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매우 빠르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쿠알라룸푸르의 야경 또한 잊지 못할 만큼 예쁘고 멋진 광경이었다. 저녁은 한식집에서 김치찌개와 닭볶음탕을 먹었고, Pacific Regency Hotel에서 다음날 일정을 위해 일찍 잠에 들었다.

셋째 날은 대학교, 대사관, 코트라에서 연달아 강연을 들었다. 첫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를 방문하여 현지 대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강의의 주제는 말레

이시아의 정치로 나는 정치외교학과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난 뒤에 더욱 집중하여 들었다. 아무리 정치외교학과라고 해도 말레이시아 정치는 깊게 배워본 적이 없었기에, 5문제 퀴즈에서 4문제를 틀리고 말았다. 교수님께서서는 매우 유쾌하시고 영어 발음도 좋아서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대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대한민국 대사관**(우측 이미지)으로 이동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은 몇 번 다녀왔어도, 한국 대사관 방문은 처음이라서 감회가 새로웠다. 말레이시아 대사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분께서 말레이시아 전반에 대한 소개를 부담 없이 흥미롭게 발표해 주셔서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갔다. 특히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한다는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어서 **KOTRA**에서는 동남아 해외취업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대기업에 취직한 우리 나이 또래의 멘토 두 분이 진



행해주신 생생한 일화와 질의응답이 마음 깊이 와 닿았기에 정말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분의 노력과 끈기, 그리고 열정이 강하게 느껴져서 자극이 되기도 하였고,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다. 현지식으로 저녁을 먹고 이후의 저녁 시간은 자유롭게 보내기로 했다. 나는 같은 과의 친구들과 함께 호텔 근처의 대형 쇼핑몰에 들러 물건을 사고 부킷빈탕거리에서 마사지를 받기로 했다.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금방 그쳐서 우산 없이 걸어갈 수 있었다. 먼저 파빌리온에서 카야잼, 망고젤리, 센소다임 치약 등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물건들을 사고 부킷빈탕으로 걸어갔다. **부킷 빈탕**은 지난번 동계 문화체험에서 갔었던 태국의 카오산 로드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관광객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인파로 북적였고, 화려하고 신나는 거리였다. 하지만 좁고 어두운 골목도 많았고, 그곳에는 쥐가 들끓어서 많이 놀라기도 했다. 우리는 가이드분이 추천해주신 유명 마사지샵에서 90분 코스의 말레이 마사지를 받기로 했다. 말레이 마사지는 조금 과격한 타이 마사지와 다르게 온몸 구석구석을 아로마 오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여 자극적이지 않게 몸을 풀어준다. 마사지를 받고 나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에 들었다.



마지막 날은 쿠알라룸푸르의 명소를 빠짐없이 둘러 보았다. 말레이시아의 왕이 실제로 거처로 삼고 있는 황금빛의 **왕궁**(좌측 이미지)의 내부는 출입불가였지만 여러 명의 근위병들과 말이 외곽을 지키고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입헌군주국으로 13개주와 1개의 연방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주에는 술탄이라 하는 왕이 존재한다. 그 중 말레이시아 본토에 있는 9개의 주 술탄이 5년 임기로 번갈아가며 국왕직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1970년~75년까지 제 5대 국왕에 올라 임기를 끝낸 왕이 14대 국왕 임기를 한 번 더 수행했다고 한다. 다음

행선지는 말레이시아 이슬람의 상징인 **국립 모스크**(다음 장 상단 이미지)였다. 이곳에서 여성은 히잡과 차도르를 써야 입장이 가능했다. 이 복장이 처음에는 나름 신기한 체험이라서 재밌고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덥고 불편해서 온몸에 땀이 흐르고 힘들었다. 이슬람의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물론 그들은 이슬람교의 신자로서 자랑스러워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 할 수도 있지만, 현시대에 여성에게 가혹하고 불리한 종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모스크의 내부는 흰 대리석과 기둥으로 정말 깨끗하고 경건한 마음이 들도록 꾸며져 있었다.



땀을 식히며 **메르데카광장**으로 이동했다. 메르데카 광장은 '독립 광장'이라는 뜻으로, 말레이시아가 독립한 1957년 8월 31일, 영국 국기를 철거하고 말레이시아 국기가 게양된 역사적인 장소다. 현재는 말레이시아 국기와 각 주의 깃발이 게양되어 있으며, 매년 독립 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고 한다. 마지막 현지식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기대하던 **겐팅 하일랜드**(하단 이미지)로 향했다. '구름 위의 라스베이거스'라는 별칭이 붙은 겐팅 하일랜드는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겐팅(구름 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발 2,000m에 가까운 산 정상에 자리하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타고 20분 정도를 올라가야 한다. 케이블 카 안에서 내려다보니 정말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 높아서 아찔했다. 건물에 들어서자 엄청난 규모의 쇼핑몰이 펼쳐져 있었고, 우리는 먼저 Sky카지노로 향했다. 카지노는 처음이었는데 어두운 내부를 수많은 게임기가 빛을 내며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을 실제로 보니 신기하고 감회가 새로웠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지만 절대 촬영 금지라서 머리에 열심히 기억하려고 했다.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남녀손님으로 보였고, 게임의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게임 방법을 몰랐던 우리는 스태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친절하게 사용법을 가르쳐주셨다. 그러나 4게임 정도를 배팅하고서 한 번도 따지 못하고 날리고 말았다.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을뿐더러 돈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빠르게 포기하고 주변 쇼핑몰을 구경하고 나왔다.



말레이시아 문화체험의 마지막 목적지는 힌두교의 주요 성지 중 하나인 **바투 동굴**(좌측 이미지)이었다. 매년 1월 하순에 열리는 힌두교 축제기간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힌두교도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10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행렬을 이루며, 맨발로 속죄의 계단을 오르거나 바늘로 몸을 찌르는 등 순례자들의 고행 의식이 인상 깊다는 가이드 분의 설명을 들었다. 동굴을 보기 위해서는 272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계단을 오르는 중간에 원숭이들이 길을 막기도 했는데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라 귀엽고 신기했다. 동굴 내부에는 다양한 형태의 종유석과 힌두교 신들의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높은 천장으로 스며드는 햇빛과 동굴의 압도적인 규모에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이었다. 동굴을 떠나 제육볶음과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레이시아에서 마지막 저녁식사를 마치고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이동했다. 너무 빨리 지나가버린 4일이 아쉬웠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말레이시아에 와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말레이시아는 15세기 말레이 왕국의 탄생 이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까지 계속해서 타국에게 식민 지배를 당해왔다. 이는 아픈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덕분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가 서로 공존하며 영어를 공통어로 능숙하게 사용한다. 오늘날의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경험과 이점을 토대로 해외 선진국들의 자본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여 외국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교통 인프라 수준도 높고 시내의 한국의 변화가 못지않게 최신식의 높은 빌딩들이 우뚝 솟아있다. 이젠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 어딜 가도 외관상으로 후진국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 정치, 문화에서는 한국의 80년대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한다. 코트라에서 해외취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취업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청년실업률이 너무 높다. 그러나 동남아 시장은 상대적으로 고급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창업을 고려할 때도, 레드오션인 한국시장보다 더욱 크고 잠재력이 큰 동남아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문화체험으로 말레이시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만한 곳이라는 체감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이론상으로만 공부하다 직접 방문하여 단 며칠이라도 경험을 한 것이 말레이시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근방의 여러 동남아국가들에 대해서도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앞으로 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또한 졸업 후 진로의 방향으로 고려해 보려고 한다.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우선 이런 소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 주신 주관 기관과 대학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이번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에 다신 없었을지도 모르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추억과 인상을 남겨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만족스러웠던 일정에 딱히 흠 잡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점이라면, 4번 정도 먹었던 현지식의 메뉴와 구성, 맛이 너무 비슷해서 말레이시아에서만 맛 볼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좀 더 다양한 현지의 맛을 느끼면 더 기억에 남는 문화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에 바라는 점은 그저 이런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국제학부에서 매 학기마다 열리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으면 한다. 특히 국제학부를 복수전공하는 학우들에게는 동아시아 입문, 동남아시아 입문 등을 비롯한 모든 국제통상학에서 주요 대상으로 다루는 국가들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인부터 국제통상을 부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2학년 때 캄보디아에 다녀온 이후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졌던 ASEAN지역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국제학부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남아지역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통상학 복수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국제협력의 이해등 최근 ASEAN+3 국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여, 세계화가 급속도로 심화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는 선진국으로 칭해지는 미국, 유럽의 시대를 지나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동아시아 지역에 대하여 이해하고 진출하려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과 시도가 필요하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혼자 여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언어의 장벽이 더욱 높고, 치안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마련한 문화체험의 기회는 놓치기에 매우 아깝고 소중한 기회이기에 더욱 많은 학우들에게 가깝고도 먼 우리 주변의 지역에서 새로운 경험과 함께 또 다른 도전과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